

무슬림 여성, 금기 아무나 깨나?



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한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에서 AGS M. Div . (영어과정)를 마치고 선교학 전공으로 Th.M(2003년)과 Ph.D.(2008년) 학위를 받았다. 서울기독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아랍선교학을 전담하면서 이람문화연구원을 맡아 사역하고 있다.

2017년 8월, 레바논 의회는 성폭행·폭행·납치·강제결혼에 관한 형법 522조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된 법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과 결혼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르단과 튀니지도 이와 유사한 법을 폐지했고 바레인도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와의 결혼을 통한 '성폭행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¹

중동국가의 이야기가 우리와 다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13세 소녀에게 성폭행범과 결혼하라는 망언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샤부딘 야하야 사건에 관한 2017년 4월 13일 연합뉴스의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국가법은 16세 이상의 여성만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지만 이슬람법 샤리아법정에서는 16세 이전에도 부모와 샤리아법정의 허가가 있을 경우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샤부딘 야하야는 "성폭행범과 피해자 모두 새 삶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둘이 결혼하면,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남편을 얻

1. <http://news.joins.com/article/22361032>, 2018년 2월 10일 중앙일보, "히잡을 벗어 던져라" 83세 할머니도 나셨다 (이란판 '미투', 2018년 3월 28일 접속).

잖아요."라고 말하였다.² 이것이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이다.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사부딘 아하야는 폐륜(廢倫)적으로 13세 소녀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 법을 근거로 13세 소녀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40세 남성과 결혼하여 두 번째 부인이 되라고 한 것이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폭행의 경우 종종 명예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사부딘 아하야는 이슬람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폭행한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성폭행에 대한 최상의 해결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5년간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이슬람 행동양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9천 명 이상의 16세 이하 소녀들이 결혼하여 조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국회의원 사부딘 아하야는 "12~15세 연령의 여자들이 일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지속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 법 '샤리아'에 대한 무프티들의 법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샤리아' 상의 법적 견해를 '파트와'라고 한다. '파트와'는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 무프티와 같은 이슬람법 해석 전문가들이 이슬람신앙의 근간인 꾸란(경전)과 하디스(무함마드 언행록), 이즈마(합의), 끼야스(유추)등의 샤리아 법원(法源)에 의해 내리

는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파트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각 국가와 지역마다 무프티들의 견해가 유사한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슬람의 하나피 학파에서는 여자는 9세부터, 남자는 12세부터, 말리키 학파는 여자, 남자 18세부터, 샤피이 학파는 15세부터, 그리고 한발리 학파는 남자는 1차 성징이 나타난 경우, 여자는 1차 성징 이후 월경이나 가임의 징표가 나타났을 때를 성년으로 보며 15세가 되면 성년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결혼이 가능하다.⁴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종종 예멘이나 중동 및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에서 9살 된 어린 소녀가 결혼 지참금인 '마흐르'를 지불한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와 결혼하는 경우를 본다. 파트와는 결혼에 있어서 나이차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⁵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보다 혼처가 생기면 결혼을 우선시 한다는 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⁶

이와 같이 이슬람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혼, 성폭행 면죄부로서의 결혼, 일부다처제, 시아파에서 행해지던 임시결혼 그리고 명예살인과 여성할례, 히잡 등은 단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관습일까? 그렇다면 왜 무슬림 여성들은 이란에서 히잡을 벗어 막대기에 매고 흔들며 시위하는 것일까? 왜 걸프전쟁 (1990~91년)동안 미군 여성들의 운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1/0200000000AKR20170411159100797.HTML?sns=fb>, 2017년 4월 13일자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접속.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1/0200000000AKR20170411159100797.HTML?sns=fb>, 2017년 4월 13일자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접속.

4. 이훈동, 계경문, 박순례,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 『파트와를 통해 본 이슬람사회의 규범과 현실 : 제1권 가족문화 관련 파트와』, 67-70.

5. 이훈동, 계경문, 박순례,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 64.

6. 이훈동, 계경문, 박순례,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 69-70.

전을 목격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운전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던 것일까? 1990년부터 시작되었던 운전허용 요구 시위는 28년 만인 2018년이 되어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는 6월부터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에게 운전이 허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와 같이 여성운전을 허용하게 된 것이 실세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MBS)의 '개혁 방침'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⁷

자신의 누드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도올 김용옥의 딸 김미루, 그녀가 2011년 9월 25일 <SBS 스페셜 - '아랍여인, 금기너머를 보다'>를 통해 요르단을 방문하여 여성복싱선수, 여성 국회의원, 여성 방송 DJ를 만나 금기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 일이 있다. 과연 김미루의 방송내용처럼 무슬림여성들이 모두 금기를 깨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2006년 말레

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부부를 잊을 수가 없다. 식사접대를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이었던 무슬림여성이 필자와 동행한 한국인 자매에게 자신의 남편이 부자이니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진지하게 제안했던 일이 있었다. 무슬림 가정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지만 부인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을 얻는 일에 적극적인 것과 같은 일은 단순히 세계관 차



이에서 오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신이 자라오고 생활해오던 고향을 떠나 이주민으로 삶의 터전이 바뀐 무슬림 여성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다양한 교육에 노출되면서 본국에서와 달리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히잡을 벗어내고 시위하는 이란의 사례와 함께, 프랑스와 불가리아와 같이 유럽 국가들 중에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는 것에 대한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여성에게 히잡을 씌우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무슬림 여성의 히잡을 벗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무슬림 여성들 상당수는 히잡을 벗기는 것은 자유 침해이고 히잡

7. <http://news.joins.com/article/22361032>, 2018년 2월 10일 중앙일보, "히잡을 벗어 던져라" 83세 할머니도 나섰다(이란판 '미투'), 2018년 3월 28일 접속.